

1. 감로의 불교적 의미

감로에 관한 불교 사전적 의미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아므르타(amrta)라 하며, 팔리어로는 아따타(amata)라고 한다. 이는 '먹으면 불사(不死)의 효험이 있다는 신(神)들이 마시는 물'이라는 의미와 도리천(初利天)에 있다는 감미로운 물이라는 의미다. 물론 이 감로의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니요 영적인 생명수로서 미륵불이 출현 시에 가지고 온다는 신의 산물이요 증표이다.

도리천은 불교의 우주관에서 불 때 33개의 하늘 층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을 이르는데 이는 실제 우주 공간의 특정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깨달음 층을 뜻한다고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함이 맞는 것은 불경에는 은유와 비유의 말로써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이 곧 부처라는 의미의 심즉불(心即佛)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가 하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불교의 우주관 역시 우주 만물이 사람의 마음에서 지음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도리천 역시 마음의 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경 창세기나 요한복음1장절 이하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하는 의미와 상통 한다.

불경(佛經)에서는 이슬성신을 단 이슬 즉 감로(甘露), 감로수(甘露水), 대열반광(大涅槃光), 법성광명(法性光明) 등으로 표현하며 대반열반경, 화엄경, 법화경, 감로수진언 등 많은 불경에서 예언하고 있다.

석가는 열반경 8권에 이르기를 미래세에 오실 생미륵불의 진삼법이 곧 감로라 하기도 했다. 이는 곧 참 진리의 말씀이 감로이며 참 진리의 주인공이 나올 때 비로소 불로불사 불생불멸의 감로를 먹게 되고 감로를 먹음으로써 비로소 인간 속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진정한 극락정토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방불기 3천년이 넘도록 가르쳐온 불경은 참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하는 불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석가는 열반경에 이르기를 자기가 평생 가르쳐 온 것은 반글자이니 미륵불이 출현 시에 온전한 글자가 나오며 자신도 그때야 비로소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자 거더러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자는 자



# 감로의 도 ②

## 제장. 감로이슬의 실체



기의 제자가 아니라고 까지 하였다. 지금까지 열반경의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수행하고 공부한 자들은 석가의 참 제자가 아니며 헛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감로(이슬)는 무지갯빛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된 원인이 '선악과' 때문이며, 또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으로 '생명과일'을 먹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감로를 열반(涅槃)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해탈의 경지요 불사영생의 존재를 말한다. 즉 감로자체가 불사영생의 하나님의 신이요, 불생 불멸의 미륵불이다.

감로를 정갈하고 감미로운 물이라고 하나 이는 세상의 이슬과 같은 물이 아니다. 또한 감로를 법성광명(法性光明)의 빛이라 하나 이 세상의 태양빛과 같이 태워서 죽이는 사망의 빛이 아니며, 음양의 그림자가 있는 직선 광선도 아니다. 이 빛은 태양빛보다 몇 천만 배 뜨겁지만 타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의 성질을 가진 중성자 빛이며, 음수형과 같이 곡선으로 회전하며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곡사 광선으로서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신통력을 보인다.

열반경 8권 진삼귀의품에는 석가세존이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만일 감로를 먹게 되면 상한 목숨이 다시 살아나고, 혹 다시 감로를 먹으면 수명이 길어져 오래도록 보존하리라. 위하는 감로의 맛은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라고 하였다.

성경이 전하는바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과일과 만나를 먹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원래 하나님의 상태로 중생(重生) 부활할

을 입어 영원히 나고 죽음이 없는 천국 삶을 이루는 데 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감로이슬을 먹고 해탈열반(解脫涅槃)에 이르러 6도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이제그대로 이 세상에 감로의 주인공이 오셨다는 것은 동물 차원의 미개한 인생들이 신의 차원으로 승화하여 천국의 세계, 극락정토의 세상을 이루어 완전히 또 다른 부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 발전해 가고 있다는 의미다.

감로(이슬)는 7색 무지개의 빛깔로도 나타나는 색소나 지구표면 또는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오라'와 다른 점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빛깔과 다양한 맛과 향기와 다양한 성질을 지닌 인공적으로 가공할 수 없는 무공조화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신의 모습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망의 빛이 되는 태양빛과 전기 불처럼 음양의 성질을 가진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중성의 성질을 지닌 광선이다. 감로(이슬)의 다양한 성질로써 대표적인 것이 뜨거운 열을 지닌 '불 성신'과 백합꽃 향기와 같은 향취를 지닌 '이슬성신' 목

마름과 배고픔을 해소하는 '감로수' 즉 '생수이슬'의 성질로 나타난다.

메시아 미륵불께서 연단시절 세상의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도 30일씩 14번의 금식기도와 열흘씩의 금식기도를 딱 먹듯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생수가 되는 감로이슬 성신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 생활이 가능했다고 하셨다.

또한 그들은 성경 본래의 목적인 영생의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간다는 사후천국을 논하고, 오히려 살아 영생과 천국을 논하는 것을 이단(異端)시 하며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흐리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사방으로 몰아가는 그야말로 사이비종교 우상의 집단에 불과하다.

성경 창세기 27장 27절에는 감로이슬이 향취를 풍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기록으로 전하는 내용이 있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신을 축복하여 전수하였듯이, 이삭의 하나님 역시 그의 쌍둥이 아들 중 먼저 낳은 '에서'에게 하나님

의 신을 축복하려 할 때 '에서'의 어머니이자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선동(先童)이 에서는 복이 없고 후동(後童)이 아홉이 복이 있다."하는 태몽 꿈을 생각하고 나중 출생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신을 축복하도록 눈먼 남편을 속여 큰 아들 '에서'가 축복에 쓰일 산 짐승을 사냥하러 나간 시간을 이용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짐에서 잡은 양을 요리하여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을 축복 받게 하였다.

이때 '이삭'은 눈이 어두워 쌍둥이 아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 털이 많은 큰 아들 에서를 분별하고자 '야곱'의 팔을 만져보니 야곱의 팔에 양털이 감아져 있어 '에서'로 알고 하나님의 신을 축복하게 된다.

그래도 의심이 되어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고자 하여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고 한다. 그래서 '야곱'이 가까이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입을 맞출 때 이삭은 아들 '야곱'의 옷에서 하나님의 향취를 맡고 야곱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로 알고 하나님의 신을 축복하게 된다.

이때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와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를 집으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하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신을 전수 하였다.

이처럼 오늘날 불경과 성경을 비롯한 모든 종교와 예언서에서 말하는 감로이슬은 세상의 물질이거나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력이 겹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감로의 도(道)를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감로의 도를 얻어 불사영생의 존재가 되어 영원무궁토록 천국극락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과 부처님의 도는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때와 장소와 증표가 있다. 그러기에 메시아 미륵불은 인류를 구원할 능력과 보혜사 성령의 새로운 진리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다. 여기서 하나님과 부처님, 성경과 불경은 그 용어는 다르나 궁극적인 목적과 종교적 의미는 같은 것이다.(계속)

서보목 승사 / (주)해동 대표

# 2015년 메시아절 행사

구세주님을 대신하여 꽃다발을 받는 이영자 총재

진혜재단 식구들이 짙 짙(?)을 돌을 선보이고 있다

그들의 하모니로 이 땅에 영생과 평화를 심어줄 것이라 / 남창년 중창

김성우 음악총감독

서보목 승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부산재단 김원찬 승사의 하모니카와 우크렐라 연주

무궁화 합창단의 멋진 무대

50분간에 걸쳐 행사의 대미를 멋진 연주로 마무리한 무궁화 관현악단

천국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다